**사카키바라 집안 묘소**

여기에는 에도 시대(1603~1867)에 히메지성의 번주였던 다이묘(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) 사카키바라 집안의 두 사람이 모셔져 있습니다. 왼쪽 묘비는 인생의 마지막 2년 동안 히메지 번주를 맡았던 사카키바라 마사후사(1641~1667)를 모시고 있습니다. 마사후사의 석비에는 ‘고 시키부 다이후 지주 종4위 하 미나모토 아손(故式部大輔侍從從四位下源朝臣)’이라고 그의 정식 계급과 칭호가 새겨져 있습니다. 에도 시대에 일본을 통치했던 도쿠가와 집안에서는 자신들의 집안이 일본에서 무사 가운데 처음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위대한 무장 미나모토노 요리토모(源賴朝)(1147~1199)로부터 이어지는 가계라고 주장했습니다. 따라서 ‘源’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마사후사와 도쿠가와 집안이 가계상으로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오른쪽의 묘비는 사카키바라 마사스케(1705~1732)를 모시고 있습니다.

두 묘비는 ‘귀부’라고 하는 중국의 전설상의 거북 위에 서 있으며, 이 거북은 노력과 근면의 상징입니다. 각 묘비 뒤에 있는 석탑에는 산스크리트 문자로 쓰인, 불교 우주론의 다섯 요소를 나타내는 문자 ‘地’, ‘水’, ‘火’, ‘風’, ‘空’이 새겨져 있습니다.

이 두 묘비는 이후의 히메지 번주 사카키바라 마사미네(1715~1743)에 의해 1734년경에 건립되었습니다. 마사미네는 돈 씀씀이가 헤프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. 유명한 요시와라의 유녀를 기적에서 빼기 위해 거금을 탕진한 뒤, 곧 작은 번의 다이묘로 좌천되었습니다. 마사미네는 히메지 번주였던 시절,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여름의 유카타 축제를 시작했습니다. 사카키바라 집안의 자손은 지금도 축제에 참가한 뒤 선조의 묘소에 성묘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. 묘소 앞을 장식하고 있는 많은 석등롱은 예전의 사카키바라 집안 가신의 후손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기증한 것입니다.